

初期 翻譯聖經研究

崔 泰 榮*

- | | |
|----------|------------|
| I. 序 論 | 5. 口蓋音化 |
| II. 音韻現象 | 6. 頭音法則 |
| 1. 圓唇母音化 | 7. 弱化 및 脫落 |
| 2. 움라우트 | 8. 其 他 |
| 3. 母音調和 | III. 結 論 |
| 4. 單母音化 | |

I. 序 論

1. 聖經이 韓國에 傳來된 것은 일찌기 純祖 16年(181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英國의 遣中使節 애머스트(Amherst) 卿을 護衛하고 中國에 왔다가 朝鮮西海岸의 海圖作成의 任務를 떠 고 來韓하였던 英國軍艦 알세스트(Alceste)號의 艦長 맥스웰(Murray Maxwell)大領과 리라(Lyra)號의 艦長 홀(Basil Hall)大領은 同年 9月 4日 庇仁灣 馬梁鎮앞 葛串아래 停泊했는데 이 때 問情을 하기 위해 上船했던 當時 馬梁鎮 僉使 趙大福에게 聖經을 贈與했다. 이것이 韓國에 聖經傳來의 嚆矢가 되었다.¹⁾ 그 후 네덜란드 宣教會의 派送을 받은 독일 宣教師 귀즈라프(Gützlaff) 牧師가 1832년 2월 長山串과 群山灣에 이르러 약 1개월간 道民에게 漢文聖經과 教理書를 나누어 주면서 傳道한 일이 있었다. 1865년 9月 4日에 中國 芝罘를 떠난 런던 宣教會의 中國宣教師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牧師는 9月 14日 韓國海岸에 到着하여 두달 반 동안을 지내면서 漢文聖經冊을 韓國人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는 다시 北京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듬해인 1866년 7월 29日 美國商船 셔만(General Sherman)號를 타고 天津을 出發하여 다시 來韓하였다. 셔만號가 백령도, 長山串, 席島를 거쳐 石湖亭에 닿았을 때 많은 傳道文書와 漢文聖經을 任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배가 다시 더 大同江을 거슬러 올라 萬景臺에 이르렀을 때 토마스 牧師는 동네에 들어가 많은 漢文聖經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는 斬首를 당하는 순간까지 軍卒들에게도 聖經을 주었다.²⁾

*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副教授

*이 論文은 1982년도 문교부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金良善 (1971), 韓國基督教史研究, 基督教敎文社, p. 40.

2) 白樂潛 (1973), 韓國改新敎史, 延世大學校出版部 pp. 44~48

2. 最初の 翻譯聖經은 「누가복음」이다.³⁾ 이것은 1882년 奉天에서 3,000부가 刊行되었다. 곧이어 「요안너복음」이 3,000부 刊行되었다. 이들은 만주에서 宣敎를 開始한 英國 스코트랜드 宣敎師인 로스(John Ross) 牧師와 同僚 宣敎師인 매켄타이어(Jone Mac-Intyre) 牧師, 그리고 李應贊, 金鎮基, 白鴻俊등의 平安道 義州靑年들의 손으로 翻譯되었다. 「누가복음」은 1875년부터 번역에 着手하였으며 1878년에는 이 「누가복음」과 「요안너복음」의 翻譯이 完了되었고 印刷에 부치기 前, 한 冬至使行의 隨員이 歸路에 奉天敎會에 들렀는데 그에게 同原稿의 校正을 부탁하였는바 그는 그것을 서울로 가지고 가서 校正을 본 후에 다시 奉天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하여 作成된 原稿는 印刷施設 設備관계로 刊行이 지연되다가 드디어 1882년에 가서야 刊行되게 된것이다.⁴⁾ 이때 金淸松이 植字工으로 印刷에 가담했다.

1883년에는 교정된 「누가복음」과 「메자헝적」이 合本으로 나왔고 「요안너복음」도 교정되어 再 刊行되었다. 1884년에는 「말코복음」과 「맛덕복음」이 刊行되었으며 같은해 日本 요꼬하마(橫濱)에서는 요꼬하마 주재 美國 聖書公會 總務 루미스(Henry Loomis) 牧師의 要請에 依하여 李樹庭이 「마가의 전훈 복음서언해」를 번역간행하였다.

1885년에는 다시 奉天에서 로스牧師등에 의하여 「로마서」, 「코린돏전후서」, 「가라다서」, 「이비소서」가 刊行되었고 1887년에는 「예수성교전서」가 刊行되었다.⁵⁾ 이것은 복음서를 위시하여 이미 나온 책들과 新約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번역하여 新約全書 全卷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를 通稱 로스번역본(Ross Version)이라 하며 最初の 翻譯 新約全書가 되는 것이다.

1887년에는 聖書翻譯委員會가 設立되었으며 1890년에는 아펜셀러(H. G. Appenzeller) 委員의 번역으로 「누가복음」이 요꼬하마에서 刊行되었는데 이는 로스本을 수정한 것이다. 特徵은 固有名詞에 줄을 내려그었는데 地名에는 쌍줄을, 또한 人名에는 외줄을 내려그었다. 1881년에는 다시 아펜셀러 牧師가 로스本을 改定하여 「요안너복음」을 요꼬하마에서 刊行했는데 한글을 바탕으로하고 옆에 漢文을 달아 놓은 것이 特色이다. 1893년에는 침례교牧師 펜윅(M. C. Fenwick)은 「약한의 기록헌터로 복음」을 내었으며 1895년에는 聖書翻譯委員 언더우드(H. G. Underwood) 牧師가 로스本과 李樹庭本을 改訂하여 「마가복음」을 요꼬하마에서 刊行하였다. 1895년에는 聖書翻譯局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내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3) 이보다 앞서 이미 18世紀 末葉부터 天主教關係文獻이 出現되기 시작했으며 19世紀 中葉부터는 「던쥬성교공과」를 비롯한 많은 書籍이 刊行되었으나 이들은 本格的인 聖經의 翻譯이 못된다.

康允浩(1967), 十九世紀初에 있어서의 西洋宣敎師의 韓國語研究, 東西文化 1,

宋 敏(1976), 19世紀 天主教 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국어국문학, 72·73

羅采雲(1970), 國譯聖書에 對한 國語學的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4) 金良善(1967), Ross Version 과 韓國 Protestantism, 白山學報 3, pp. 429-430.

5) 「예수성교전서」의 複刷版이 六·二五 以後 韓國에서 出版되었는데 그 複刷本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글이 初頭に 실려있다.

“본서는 보통 「로스」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1887년판 한국어 신약전서의 복쇄(複刷)다. 본서는 판매하기 위하여 출판한 것은 아니다. 본서 복쇄비용을 충당할 만큼 대금을 지불하여 주기를 청하는 바이다. 본서는 1950년 9월 화재로 전부 타버린 원 성서회관 대신에 1956년 종로에 재건된 새 성서회관 낙성을 기념키 위하여 출판한 것이다.”

印刷되었다.⁶⁾ 聖書翻譯局에서는 다시 1896년에 「마가복음」을, 1898년에는 「누가복음」을 改訂 刊行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印刷되었다. 1899년에는 언더우드가 「요한복음」을 서울에서 刊行했다. 이와같은 쪽복음서들의 刊行을 거쳐 1900년에는 聖書翻譯局에서 「신약전서」를 펴냈고 이를 또 수정하여 같은해 요꼬하마에서도 印刷했으며 1904년에는 다시 수정본 「신약전서」를 거쳐 1906년 所謂 결정본 「신약전서」가 서울에서 刊行되었다.

3. 19世紀末葉의 翻譯聖經의 略史를 이처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중에도 비교적 이른 時期인 1880년대에 나온 聖經을 本稿에서는 初期翻譯聖經으로 잡고 이를 重點的으로 考察하겠다. 이에 앞서, 1882년 「누가복음」으로 시작하여 「요안너복음」, 「메자헝적」, 「말코복음」, 「맛딕복음」등을 번역하여 드디어 新約 全書인 「예수성교전서」를 1887년에 刊行한 로쓰牧師와 매켄타이어牧師 및 李應贊, 金鎮基, 白鴻俊등에 關하여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로쓰牧師는 1841년 스코트랜드에서 出生하여 同聯合教會의 牧師로 있었는데 1872년 中國宣教師가 되어 山東芝罘에 到着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山東內部는 이미 美國宣教師들이 宣敎하고 있었으므로 윌리암슨(Williamson)牧師의 권유로 勃海灣을 건너 牛莊으로 건너 갔다. 1873년 가을 宣敎本據地 選定을 爲한 傳道旅行을 떠났다. 그는 韓國宣敎에도 꿈을 구면서 奉天을 거쳐 鴨綠江 上流까지 이르러 한 韓人村을 發見하고 그 곳 任民들 중 한 사람에게 漢文聖書 몇 권을 전하고 다시 牛莊으로 돌아가던 길에 鳳凰城 바로 밑에 있는 高麗門을 들러 韓國사람들과 接觸하면서 韓國語敎師를 求하려 했다. 이 일이 바로 그 다음해 이 高麗門再訪問 때 이루어졌는데 그의 韓國語 敎師로 승락한 사람은 義州青年 李應贊이었다. 李應贊은 行商으로서 高麗門으로 가기 위해 배에 물건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다 強風을 만나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物件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려 알거지가 된 신세로 高麗門에 到着했다가 로쓰牧師의 韓國語 敎師가 될 것을 승락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1874년 로쓰牧師를 따라 牛莊으로 가서 그의 韓國語敎師 노릇을 하면서 또 한편 前述한 바와 같이 1875년부터는 「누가복음」번역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李應贊은 1874년말에 高麗門을 찾아 그 다음해에 같은 同鄕人 青年 金鎮基, 白鴻俊, 李成夏 세 사람을 牛莊으로 데려갔다. 이 세 사람은 新文化공부를 위해서 李應贊을 따라 牛莊으로 갔으나 그곳에 간지 3년이 못 되어 1876년 李應贊과 함께 매켄타이어 牧師에게 洗禮를 받고 韓國最初의 改新敎 信者들이 되었으며 李應贊과 함께 聖經翻譯에 가담했다.⁷⁾ 여기 또 翻譯에 關與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같은 義州 青年 徐相崙이다. 徐相崙은 1878년 그의 아우 相祐가 장사차 營口에 갔다가 熱病에 걸려 위급해진 때에 同鄕 친구들의 주선으로 英國宣教師의 病院에 入院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動機가 되어 그 이듬해

6) 聖書翻譯委員會의 명칭이 바뀌었다. 즉 聖書翻譯委員會는 1887년 設立되었는데 1893년에는 英國聖書公會가 서울에 支會를 設置하고 이미 있던 聖書翻譯委員會를 聖書翻譯局으로 改編했다.

表聖洙(1971), 「한글聖書文體의 形成 및 變遷過程에 關한 小考」,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p. 68.

7) 朴安진(1961),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p. 22

로쓰牧師에게 洗禮를 받았으며 이어 로쓰牧師의 要請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너복음」을 修正하였고 1880년에는 奉天으로 가서 그것을 印刷하는데 도왔다.

初期 聖經翻譯에 關與한 韓國人들은 이처럼 모두가 義州靑年들이라는 점은 特記할 만한 일이다. 이 점이 初期聖經의 言語의인 性格을 규명하는데 必히 참작될 點임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즉 한마디로 이 初期 聖經은 平安道 사투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이 번역에 關여한 사람들이 모두 平安道 義州人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 初期翻譯聖經의 刊行에 있어서 그 비용은 스코트랜드 聖書公會와 大英聖書公會가 부담했다. 1881년 上海로부터 印刷機를 구입하여 奉天에 設置하였고 韓國人翻譯者들에 의하여 준비된 木活字를 日本 駐在 스코트랜드 聖書公會 總務 릴리(Lilly)牧師에게 보내어 40,000字의 鉛活字를 만들어서 같은해 奉天으로 가져왔는데 이 비용은 스코트랜드 聖書公會가 부담했으며 또한 大英聖書公會는 前記한 바 있는 「누가복음」(1882), 「요한너복음」(1882), 「말코복음」(1884), 「맛딕복음」(1884)……등 新約의 單卷들을 印刷했으며 이들과 新約의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묶어 「예수성교전서」(1887) 5,000부를 刊行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⁸⁾

4. 아무런 正書法에 關한 規定도 없던 當時에 이루어진 번역성경은 正書法에 많은 腐心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떠한 原則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원칙을 세워서 表記에 一貫性을 살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初期의 翻譯聖經은 다른 번역성경에 影響을 주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많은 翻譯聖經의 刊行을 通하여 성경식 철자법이 일반에 浸透하게 되고 들어 通用되게 되었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11년 韓日合邦 후 朝鮮總督府 學務局에서 마련한 總督府綴字法 第一次 規定에 이 聖經식 철자법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總督府綴字法 規定은 1921년과 1929년의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33년에 朝鮮語學會에서 制定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으로 명백이 이어진 것이다.⁹⁾ 또한 初期翻譯聖經은 純한글로 表記되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사이에 한글이 더욱 쉽게 뿌리를 내리면서 기독교와 한글은 相補的 發達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

初期翻譯聖經은 信仰의인 次元外에 이러한 語學的인 意味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本稿는 1882년부터 刊行된 로쓰本「누가복음」, 「요한너복음」, 「데자형적」, 「말코복음」 등을 이런 語

8) 白樂濤(1973), 前掲書 p.57.

9) 池春洙教授는 初期聖經綴字法과 總督府綴字法 一次規定과의 差異를 다음과 같은 정도로 論述하고 있다.

“첫째 「·」를 없애고 「卜」로 일정하기로 한 점.

둘째 ㄷ, ㅌ등이 이중모음 ㄷㅌ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구개음화 현상을 철저히 현실화 하였다는 점.

셋째, ㅅ스즈등 초성에 역시 이중모음 ㅅ스즈등이 결합한 ‘샤서쇼슈자저조주’ 등을 ‘사서소수자저조주’ 등으로 일정한 점”

池春洙(1971), 初期聖經에 나타난 正書法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54, pp.20~21

10) 金允經(1954), 韓國文字及語學史, 東國文化社 p.651.

趙寅鉉(1956), 韓國現代文學史, 現代文學社 p.29

金永德(1966), 韓國近代의文學背景과 基督教, 韓國文化院論叢 6.

전택부(1980),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

趙載潤(1983), 初期國譯聖經의 國語學的 考察, 培材語文學 1.

學的인 側面에서 고찰코자 한다. 물론 前述한 바와 같이 이들은 1887년에 「예수성교전서」라는 題名을 붙여 新約全書가 合本되어 刊行되었다. 지금까지 初期翻譯聖經에 關하여 이루어진 研究들은 主로 歷史的인 背景이나 또는 語彙, 形態, 文體를 中心으로 한 表記法에 關한 것들이며 또 대부분 이러한 言語的인 事實을 함께 다루었고 그 研究대상도 로스본은 물론 그 以後에 나온 수 많은 번역본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本稿는 이와는 달리 그 對象을 가장 初期에 번역된 로스본 「예수성교전서」에 局限하며 言語的인 事實도 一次로 音韻에 限하여 이를 綿密히 考察코자 한다.

II. 音韻現象

1. 圓唇母音化

國語의 圓唇母音化는 中部方言의 경우 이미 17世紀로 거슬러 올라간다.¹¹⁾ 17世紀文獻인 譯語類解, 同文類解에 보이기 시작한 ‘불’ (火), ‘풀’ (草), ‘뿔’ (角), ‘붉다’ (紅), ‘부티다’ (附) 등의 語彙들이 이 「예수성교전서」에도 그대로 쓰였음은 물론 다음과 같이 語幹과 語尾의 連結에 있어서도 圓唇母音化가 나타나고 있다.

불으물 밧들미 <누가복음 4 : 43>
 왕되물 듯고 <맛디복음 2 : 22>
 누어스물 보되 <요안너복음 5 : 6>
 미드물 보고 <말코복음 2 : 5>
 가라치물 넘어 <맛디복음 2 : 11>

이들은 用言語幹에 名詞形語尾 ‘-ㅁ’이 붙고 그 다음에 目的格助詞 ‘-을’이 連結된 形態인데 이 ‘-을’의 /i/가 唇子音 ‘ㅁ’으로 因하여 圓唇母音 /u/로 變換한 것이다. 이 名詞形語尾 ‘-ㅁ’ 다음에 ‘-을’ 이외의 ‘-은’, ‘-으로’와 같은 形態素가 連結될 때에도 亦是 이들의 /i/는 /u/로 圓唇母音化한다.

업스문 <누가복음 5 : 38>
 화디우에 두문 <맛디복음 5 : 15>
 이스물알문 <누가복음 1 : 22>
 능항무로 <누가복음 1 : 35>
 나으무로써 고흐니 <누가복음 8 : 47>

11) 李基文(1972),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p. 202
 李秉根(1970), 19世紀後期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p. 389.

물론 이 圓唇母音化的 同化主는 ‘ㄹ’ 뿐만 아니고 ‘ㄴ’, ‘ㅍ’ 도 圓唇母音化的 同化主 役割을 하고 있다.¹²⁾

발부며 <누가복음 10 : 19>
 잡운거시 <누가복음 5 : 9>
 슬픈놀리 <누가복음 7 : 32>
 늙은 산 <말코복음 9 : 2>

그런데 이 形態素 連結에서의 圓唇母音化는 이상과 같이 用言의 語幹과 語尾사이에서 주로 나타나며 體言과 助詞間에서는 이 圓唇母音化가 나타나지 않는다.

무덤으로 부터 <맛디복음 8 : 28>
 아바님으로 말무암아¹³⁾ <맛디복음 11 : 17>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오 <말코복음 12 : 32>

이처럼 用言語幹과 語尾의 連結에 있어서는 圓唇母音化가 일어나는데 體言과 助詞間에서는 그것이 안일어나고 있음은 用言의 語幹과 語尾의 連結은 體言과 助詞의 連結보다 더욱 緊密함을 暗示하여 준다. 19世紀 後期 國語에서 體言과 助詞의 連結에서 /i/는 圓唇母音으로 發音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⁴⁾ 多分히 表音主義를 露呈시키고 있는 「예수성교전서」는 用言에 있어서는 語幹과 語尾間에 連綴表記가 되고 있으나 體言과 助詞間에는 分綴表記가 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바 ‘일홈을’ <요한너복음 1 : 6>, ‘사뎐을’ <맛디복음 7 : 1>, ‘복음을’ <말코복음 8 : 21>, ‘허물을’ <맛디복음 6 : 15> 등이 그것이다.

이 圓唇母音化는 그 同化主가 唇子音 ‘ㄹ, ㅂ, ㅍ’ 임은 周知의 사실인데 形態素 連結에 있어서 唇子音 以外の 子音下에서도 다음과 같이 圓唇母音化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샤귀를 쫓추며 <맛디복음 10 : 1>
 원가 물우니 <요안너복음 13 : 24>
 불근표 <요안너복음 19 : 2>
 죽우리라 <요안너복음 8 : 14>
 붓투미라 <요안너복음 17 : 9>

또한 形態素連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圓唇母音 ‘ㄹ’ 나 ‘ㄷ’ 아래서도 이 圓唇母音化가 활

12) 形態素 連結에 있어서 ‘ㅁ’이 同化主가 되기 어려운 것은 ‘ㅁ’을 末音으로 하는 體言이나 用言語幹이 없기 때문이다.

13) 이 ‘말무암다’는 다음과 같은 形態로도 쓰이고 있다.

말미여 <요안너복음 6 : 29>
 말마엿느냐 <요안너복음 7 : 52>
 아반이로 말문 조흔 일 <요안너복음 10 : 32>

이중 ‘말마엿느냐’는 ‘말미여’의 ‘미’가 ‘ㅁ’와 ‘ㅣ’가 결합된 二重母音이었음을 暗示하고 있다.

14) 李秉根(1970), 19世紀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p.386.

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 이 사람을 노우면 <요안너복음 19 : 12>
- 나를 주워 <요안너복음 4 : 15>
- 우슬터여 두워 <요안너복음 19 : 29>
- 돌아 보왔다호고 <누가복음 7 : 16>

以上에 보인 圓唇母音化의 例들은 形態素 連結에서 나타나는 音韻變化 즉 共時的인 音韻現象을 다룬 것인데 通時的으로도 이 圓唇母音化가 이루어진 例가 많이 보이는데 다만 몇개 用例만 들어 보인다.

- 김부게 흐니 <말코복음 6 : 23>
- 들에 풀은 <누가복음 12 : 28>
- 불을 푸이고 <요안너복음 18 : 18>
- 버푸난 <맛터복음 3 : 1>

그런데 通時的인 觀點에서 볼 때 이 圓唇母音化는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唇子音 以外的子音下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이 「예수성교전서」의 翻譯者들의 말인 平安道 方言의 한 特徵을 말해주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즉 圓唇母音化의 경우 이 平安道 方言이 다른 方言에 비해 아주 活潑함을 보여준다. 뒤에 考察할 口蓋音化와 같은 音韻現象은 그 震源地가 南部方言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圓唇母音化는 그 震源地가 北部方言이 아닐까 하는 推想을 하게 한다.

2. 음라우트

後部母音이 前部母音으로 바뀌는 音韻現象을 일러 음라우트라 하는데 이 음라우트가 일어나는 환경은 共時的인 것과 通時的인 것으로 區分할 수 있는 바 우선 共時的인 것으로 說明될 수 있는 것을 다음에 열거해 본다.

- 물메기지 은으랴 <누가복음 13 : 15>
- 성명을 취기논 거세 <말코복음 3 : 4>
- 못사람을 취겨 <말코복음 15 : 11>
- 사람을 쇠기지 안앗노라 <코린돏전서 7 : 2>
- 너의 눈에 성길이니 <누가복음 19 : 39>

中部方言에서 ‘ㄴ’, ‘ㄱ’가 單母音化 한 것은 이미 18世紀 末葉으로 推定되고 있거니와¹⁵⁾ ‘ㄴ’, ‘ㄱ’가 /φ/, /y/로 單母音化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音韻現象으로 19세기를 거치는

15) 李崇寧(1955), 音韻論研究, 民衆書館, p. 454
李基文(1972), 改訂國語史概說, 民衆書館, p. 202.

동안에 이 /φ/와 /y/는 하나의 音素들로 定立된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런데 이 ‘ㄴ’, ‘ㄷ’가 單母音化되는 環境이 처음에 齒擦音下에서였을 것임은 이미 考察된 바 있다.¹⁷⁾ 이 「예수성교전서」에서도 ‘ㄱ’나 ‘ㄷ’가 ‘ㄴ’, ‘ㄷ’로 올라우트된 것은 위에 들어 보인 ‘꺾기-’, ‘꺾기-’, ‘쇠기-’, ‘성기-’ 등이며 ‘늪피-’, ‘굽피-’ 등은 일체 올라우트를 外面하고 있다. 그런데 齒擦音 아래 ‘ㄱ’, ‘ㄷ’가 올라우트되는 것은 그리 강력한 세력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위의 ‘꺾기-’, ‘쇠기-’, ‘성기-’도 各各 ‘죽이-’, ‘소기’, ‘숨기-’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선지 죽인자 <맛덕복음 23:31>
 죽인 떡 <말코복음 23:35>
 소기지 말라 <가라다셔 6:7>
 나뭇 속여 <로마셔 7:11>
 능히 숨기지 못하나니 <말코복음 5:14>
 총명훈자의게는 숨기고 <말코복음 11:25>

이는 곧 이 ‘ㄱ’, ‘ㄷ’의 /φ/, /y/로의 單母音化가 그리 一般的이 못됨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共時的으로 이 올라우트가 活潑히 일어나고 있는 方言中 하나가 西南方言이라 할 수 있는 바 그 中 全州 地域語를 一例로 들어 보면 形態素連結에 있어서 [-cor]의 자음이 介在되는 境遇 통사론적 기능을 가지는 ‘-기’를 除外하고는 이 올라우트가 아주 活潑히 일어나고 있다. 體言에 主格 助詞 ‘-이’가 올 경우, 用言語幹에 使動, 被動的 ‘-이-, -기-, -히-’가 連結될 境遇, 副詞派生接辭의 ‘-이, -히’ 등이 連結될 境遇 이 올라우트가 活潑하게 일어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 「예수성교전서」에서는 形態素連結에 있어서의 올라우트는 위에 든 用例 外에는 別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¹⁹⁾ 이는 이 冊의 번역자들이 義州 靑年들이라는 것을 勘案할 때 19世紀末 平安道 方言에서는 形態素連結에 있어서 올라우트가 아주 微弱하게

16) 李崇寧 (1955), 前掲書, p. 454.

17) 李秉根 (1970), 19世紀後期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p. 381.

18) 筆者는 이 全州地域語의 올라우트를 다음과 같이 規則化한 적이 있다.

$$[+syll] \rightarrow [-back] / \left\{ \begin{array}{l} - \left[\begin{array}{l} +cons \\ -cor \end{array} \right] + \left(\left[\begin{array}{l} +cons \\ -cor \end{array} \right] \right) \left[\begin{array}{l} +syll \\ +high \\ -back \\ -labial \end{array} \right] \\ - \left(\left[\begin{array}{l} +cons \\ -cor \end{array} \right] \right) + \left[\begin{array}{l} +cons \\ -cor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syll \\ +high \\ -back \\ -labial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拙稿 (1981), 全州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 p. 121.

19) 올라우트가 안되고 있는 用例 몇개만 더 들어 본다.

잡뿔다뿔 뜻고 <맛덕복음 4:11>

속키 보늬물 바리고 <비닐비 2:20>

두름팍이 <비닐비 2:11>

등 대부분 올라우트를 外面하고 있다.

實現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形態素連結이 아닌 單一形態素 內에서의 음라우트 現象도 그리 活潑한 便이 못된다. 몇개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복숨을 익기논자논 <요안너복음 12 : 25>
- 어엿비 네겨 <누가복음 7 : 13>
- 익비 <누가복음 9 : 42>
- 나를 믿지지 말라 <요안너복음 20 : 17>

現代 中部 方言에서 조차 음라우트가 된 語彙들이 음라우트를 外面한 체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보는데 ‘은잔방이’ <누가복음 7 : 32> ‘지팡이’ <말코복음 6 : 8> ‘다리고 들어가’ <누가복음 11 : 26> 등이 그것이다.

음라우트를 /i/로 因한 逆行同化로 볼 때 이 음라우트로 說明할 수 없는 /a/ > /ε/, /ə/ > /e/와 같은 音韻變化가 通時的으로 이루어졌음을 이 冊에서 볼 수 있다.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어너저시 <누가복음 6 : 9>
- 아히점점 잘이며 <누가복음 2 : 40>
- 십지틀 <말코복음 8 : 34>
- 자렛 논곳 <누가복음 4 : 16>
- 달은 썸썸지 <누가복음 6 : 29>²⁰⁾
- 넌네 흥며 <누가복음 10 : 40>
- 늘범과 선지톨 혈네 온출노 <맛디복음 5 : 17>
- 그 헤톨 만지고 <말코복음 7 : 33>
- 그 한나 썸톨 썸지 온앗다 <요안너복음 19 : 36>²¹⁾

/i/와 관계 없이 이처럼 많은 語彙에서 /a/가 /ε/로, /ə/가 /e/로 나타나고 있다.²²⁾

結局 이 「예수성교전서」에 나타난 음라우트의 共時的으로 形態素 連結位置에서는 別로 많이 實現되지 않으며 또한 單一語 內에서는 그것도 그리 生産的이 못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通時的으로 /a/와 /ə/를 가지고 있던 語彙들이 /i/와 關係없이 /ε/와 /e/로 바뀐 것들은 아주 많이 볼 수 있으나 이것도 위의 用例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o/, /u/가 /φ/, /y/로 바뀐 것은 그 用例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이 /φ/, /y/가 音素로서의 確固한 位置를 아직 維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²³⁾ 「예수성교전서」에

20) ‘썸’이, ‘썸’으로 나타난 것은 /ε/의 存在를 더욱 뒷받침한다.

21) ‘썸’이 ‘썸’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시 /ε/의 存在를 뒷받침한다.

22) 이러한 音韻現象이 南部方言 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拙稿(1981), 全州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p.123.

23) 金完鎮教授는 ‘i’의 音價가 [ə]가 아닌 [e]에 거의 가깝게 實現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金完鎮(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p.22.

서는 /e/표기에는 ‘ㅐ’가 사용되지 않고 언제나 ‘ㅣ’가 사용되고 있으며 ‘ㅑ’는 ‘ㅓ’와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어떤 語辭들에 있어서는 ‘ㅑ’를 固定시켜 表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境遇 ‘ㅑ’와 ‘ㅓ’의 混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두어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스롭 압페 <맛디복음 10 : 12>
- { 울흔 사롭 <맛디복음 10 : 40>
- { 나타너지 혼으며 <누가복음 12 : 2>
- { 아지 안으며 업느니 <누가복음 12 : 2>
- { 생각한죽 <누가복음 6 : 37>
- { 생각하교 <누가복음 6 : 37>
- { 혼 울은편 손 말은자 <누가복음 6 : 6>
- { 한 사롭 <누가복음 4 : 36>

結局 이러한 ‘ㅑ’와 ‘ㅓ’의 混記는 이들 語彙에 있어서는 ‘ㅑ’와 ‘ㅓ’의 음가가 같음을 意味한다.

3. 母音調和

國語의 母音調和와 母音體系는 古代 및 前期 中世國語까지만 해도 合致를 보여 주었던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²⁴⁾ 卽 前舌母音은 前舌母音 끼리, 後舌母音은 後舌母音끼리 調和를 이루는 所謂 口蓋的 調和를 이루었던 것인데 母音體系의 變動으로 因하여 後期 中世語에 오면 이미 母音調和는 斜線的 體系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16世紀 以後에는 非語頭音節에 있어서 대부분 ‘ㅑ’—’로 의 音韻 變動으로 因하여 母音調和는 衰頹의 길을 걷다가 結局 오늘날에는 國語의 母音調和는 紊亂하게 되고 말았다.

「예수성교전서」에 나타난 母音調和 中 우선 助詞의 境遇를 살펴 본다. 目的格 助詞로는 體言未音節이 母音으로 끝나면 ‘ㄹ’이 쓰이고 있다. 몇개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더를 보지 못하나 <로마서 1 : 20>
- 신테를 분변치 못하면 <코린돏전서 11 : 29>
- 나를 디답하라 <말코복음 11 : 30>
- 크리스토틀 본바듬 갖치하라 <코린돏전서 11 : 1>
- 빌기를 가라쳐 <누가복음 11 : 1>
- 우리를 망하느냐 <누가복음 4 : 35>

體言의 未音節이 母音으로 끝나기만 하면 그것이 양성모음이거나 음성모음이거나 關係없이 ‘ㄹ’로만 쓰이고 있다. 이미 16世紀에 第二音節 以下の ‘ㅑ’의 음가는 主로 /i/로 바뀌었는

24)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 p. 133.

데도 不拘하고 이 「예수성교전서」에서는 이처럼 ‘-를’ 로만 表記되고 있는 것은 純全히 어떤 表記의 統一性을 期하려는 意識의 發露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앞서서도 잠시 言及한 바 있듯이 ‘\’ 와 ‘ㅏ’ 의 表記에 있어서는 상당수 混記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 目的格 助詞 ‘를’ 의 境遇에는 거의 例外가 없이 ‘-를’ 로만 쓰이고 있음은 더욱 表記의 統一性을 기하려는 意識의 所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體言의 末音이 子音일 境遇를 살펴보면, 우선 用例를 몇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듯논바 능간을 의지하며 <말코복음 4 : 33>

휘당을 여논 길이니 <합리서 10 : 19>

하나님의 아달을 좇말바 <합리서 10 : 29>

이들은 體言 末音節이 陽母音일 境遇인데 얼른 보면 表記上으로는 母音調和를 잘 지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體言 末音節이 母音이 陰母音인데도 不拘하고 ‘-을’ 이 使用 表記된 것을 보게 된다.

너 계명을 지키라 <요안너복음 14 : 15>

산과 두던을 <누가복음 3 : 5>

간증을 삼우라 <누가복음 5 : 15>

이는 아무래도 ‘-를’ 의 境遇와 같이 母音으로 끝나는 體言에는 ‘-을’ 로 表記하려는 意識의 發露라 할 수 있으며 이미 이 ‘-을’ 의 경우에도 音韻論적으로는 그 ‘\’ 가 /i/로 變動된 後의 것으로 看做될 때 母音調和는 目的格 助詞에서는 이미 파괴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이 ‘-을’ 이 表記된 用例도 간혹 보이거나 이 ‘-을’ 의 사용 빈도는 아주 적다.

동성을 노흔논자 <맛디복음 5 : 22>

사롬의 허물을 샤흔면 <맛디복음 6 : 14>

위의 ‘허물을’ 의 경우 바로 그 다음 맛디복음 6장 15절에는 ‘사롬의 허물을 샤치 안으면 또 너희 허물을 샤치 안나니’ 와 같이 곧 ‘-을’ 이 表記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를’ 이 쓰일 곳에 ‘-을’ 이 使用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바다을 진네여 <요안너복음 6 : 17>

송사을 들으며 <누가복음 12 : 14>

쥬의 깃분 허을 던하라 <누가복음 4 : 19>

이것도 단적으로 말하여 發音과는 거리가 먼 觀念的인 表記意識의 所産으로 볼 수 있다.²⁶⁾

25) 羅采雲(1970), 國譯聖經에 대한 國語學史的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p. 30.

26) 이와는 反對로 子音으로 끝난 體言에 ‘-를’ 이 연결된 것도 있다.

소경의 눈물 사롬이 열었다. <요한너복음 9 : 32>

이 目的格助詞의 경우 特記할 것 中에 하나는 ‘스’, ‘츠’等을 末音으로 하는 體言의 경우 體言과 助詞와의 綴字는 所謂 連綴을 하면서 ‘-을’이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고분거슬 꺾게 향며 <누가복음 3:5>
 나리꽃출 생각향라 <누가복음 12:26>
 더 낮출 변향여 <맛디복음 6:16>

주제격 助詞의 경우 體言의 末音이 子音이면 ‘-은’, 母音이면 ‘-논’이 주로 쓰이고 있는 바 卽 體言末音節의 母音이 陽母音이거나 陰母音이거나 가리지 않고 ‘-은’과 ‘-논’이 쓰이고 있으니 이는 母音調和와는 無關한 것이다. 몇개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⁷⁾

이 말은 울운가 향미라 <데자형적 17:11>
 이 사롭덜은 <데자형적 17:11>
 하나님은 텃디의 주니 <데자형적 17:24>
 보논자논 <요안너복음 9:39>
 예수논 자거날 <맛디복음 8:25>
 네논 유디 사롭이라 <요안너복음 4:8>

造格의 境遇 子音으로 끝난 體言에는 ‘-으로’만 쓰인다.

묘쇼의 늘범으로 <데자형적 13:39>
 이 사롭으로 말무압아 <데자형적 13:38>
 너인으로 위향여 지으미 안이요 <코린뚝전서 11:9>

이것 亦是 母音調和와는 無關하게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所有格助詞는 ‘-의’로 統一되어 있다. 中世國語에서만 해도 ‘-의’와 ‘-의’가 母音調和를 지켜 가며 區別되어 쓰이던 것이 ‘-의’는 全然 안 쓰이고 ‘-의’로만 統一되어 쓰이고 있음은 母音調和가 外面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몇개 用例만 보이겠다.

그 영화의 몸과 <비넵비 3:20>
 너의의 부모 <누가복음 8:51>
 걸기의 규례 <누가복음 2:42>
 하나님의 텃 <누가복음 6:4>

與格助詞로는 ‘-게’와 ‘-의게’가 얼른 보아 無原則하게 마구 쓰이고 있다.

27) 表記의 統一性을 期하려 했으나 간혹 例外가 나타나는 바 ‘제사은’ <헛리서 10:11>과 같은 것을 그 一例로 들 수 있다.

- 털사게 갈오디 <누가복음 1 : 18>
- 예수게 구흐니 <누가복음 4 : 38>
- 시몬게 갈오샤디 <누가복음 5 : 10>
- 하나님께 감사하교 <누가복음 2 : 38>
- 박사의게 회롱한줄을 알고 <맛디복음 2 : 16>
- 요안너의게 바든지라 <누가복음 7 : 29>
- 하나님의게 빌고 <누가복음 6 : 12>
- 사롭의게 빌니고 <누가복음 6 : 34>

即 이 ‘-게’와 ‘-의게’는 體言의 末音이 子音이건 母音이건 상관하지 않고 마구 쓰이고 있다. 中世國語에서만 해도 ‘-고’, ‘-다’처럼 母音으로 시작하는 異形態를 가지지 않은, 子音으로 始作되는 語尾들은 母音調和에 無關했음은 이미 檢討된 바 있는데²⁸⁾ 이 ‘-의게’의 경우 中世國語에서는 ‘-의게’가 짝을 이루어 母音調和에 關與했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이 「예수성교전서」에서는 ‘-의게’, ‘-의게’의 경우 -의게 하나로 ‘-의게’가 쓰이던 領域까지 使用되고 있다.²⁹⁾

用言 語幹에 連結되는 所謂 冠形詞形語尾의 경우³⁰⁾ 動詞 語幹 末音이 子音이면 過去를 나타내는 어미로는 ‘-은’으로 統一되어 쓰이고 있다. 물론 形容詞의 境遇 ‘-은’은 現在를 나타낸다. 몇개 用例를 보인다.

- 홀레의 기호를 바든 거슨 <로마서 4 : 11>
- 남은 부슬어기 <말코복음 6 : 43>
- 손으로 지은 던에 <메자형적 17 : 24>
- 자긔게 붓튼자 <요안너복음 13 : 1>
- 쉽지 은은 썬나 <티모도후서 4 : 2>

이 亦是 母音調和와는 無關한 表記이다. 動詞語幹에 現在를 나타내는 語尾로는 ‘-는’이 統一되어 使用되고 있다.

- 듯는 자를 구완하니라 <티모도전서 4 : 16>
- 나를 주느바 의의 면누관 <티모도후서 4 : 8>
- 미혹하논 령과 <티모도전서 4 : 1>
- 막논것 갖타어 <티모도후서 3 : 8>

28) 金完鎭(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p.122.

29) 與格과 關係있는 것으로 特記할 것은 現代國語에서라면 ‘-에게’가 쓰일 자리에, -을’이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아달노쎌 그어맘을 주니 <누가복음 7 : 15>

너희를 밥팀레 주고 <누가복음 3 : 16>

나를 주느바 의의 면누관 <티모도 후서 4 : 8>

와 같은 것이다.

30) 알타이어에서 起源의으로 모든 活用形은 動名詞形이었음이 의미 밝혀졌다.

金完鎭(1957), -n, -l 動名詞의 統辭의 機能과 發達에 對하여, 國語研究 2, p.20.

李基文(1972), 改訂 國語史概說 p.20.

죽이는 자라 <요안너복음 8:44>

未來를 나타내는 語尾에는 ‘-을’ 과 ‘-어’ 이 無原則하게 使用되고 있다.

먹을 것을 사려 하더니 <요안너복음 4:8>

줄을테 닐으며 <맛디복음 10:21>

전약 먹을적에 <요안너복음 13:2>

副詞形 語尾 ‘-아’, ‘-어’ 의 경우에 있어서는 陽母音語幹에는 ‘-아’, 陰母音語幹에는 ‘-어’ 가 連結되고 있다.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쫓는자를 돌아 보와 <누가복음 7:9>

그 손을 잡아 नी키치니 <말코복음 1:31>

영성으로써 더툴주워 <요안너복음 10:18>

다시 혈이를 굶어 <요안너복음 8:8>

술어 구하여 갈오되 <말코복음 1:40>

그러고 보면 이 「예수성교전서」에 나타난 形態素 連結位置에서의 母音調和로는 이 ‘-아’, ‘-어’가 유독 두드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에는 ‘-어’가 連結되어 ‘사롬을 위하어’ <말코복음 2:27>, ‘쫓는자 펍하어’ <말코복음 2:25>와 같이 쓰이고 있어 例外를 보이고 있다.³¹⁾

中立母音 ‘ㅣ’에 連結되는 副詞形 語尾는 ‘-어’로 一貫되어 있다.

씩어 불에 더지리라 <누가복음 3:9>

가라치물 닐어 <맛디복음 2:11>

속키 닐어 산디방에가 <누가복음 1:39>

혜릇을 니여 유디왕 되물 듯고 <맛디복음 2:22>

이 中立母音 ‘ㅣ’ 아래서는 中世國語에서도 이미 ‘-어’가 主로 쓰였는데³²⁾ 이 「예수성교전서」에서는 거의 例外없이 ‘-어’만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Altai 語에서 中立母音이란 母音變化가, 特히 母音調和의 양계열에 屬하는 두 母音의 合流가 일어 났음에도 不拘하고 이 變化 뒤에 母音調和 規則의 再調整이 完全히 이루어지지 않을 境遇를 말하는 것으로³³⁾ 國語

31) ‘앞-’ (坐)에도 ‘-어’가 連結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당년에 온저 <누가복음 7:32>

빅가온더 안저 <누가복음 5:4>

이 ‘앞어’ 형은 現代國語에서도 대부분 地域에서 쓰이고 있는데 中世國語에서는

안자 틀게 호더 <月印釋譜 17:51>

혼자 꾸러 안자(獨危坐) <麟小學 10:6>

와 같이 母音調和를 잘 지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32) 拙稿(1980), 母音調和論, 一山金俊榮先生華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p.190.

33) 李基文(1971), 母韻調和理論, 語學研究 7-2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p.32.

의 /i/도亦是 두 母音의 合流로 말미암아 생겨난 音素로서³⁴⁾ 이 中立母音의 生成은 母音調和 破壞의 한 原因이 되었다. 몽고어의 /i/는 */i/와 */i/의 合流音인 바³⁵⁾ 이 合流音 /i/만으로 된 語幹은 모두 前舌母音 接尾辭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母音調和에 있어서 어느 程度 再調整이 이루어진 結果인 것이다.³⁶⁾ 現代國語에서는 ‘ㅣ’ 末音節 用言 語幹에는 副詞形語尾로는 ‘-아’, ‘-어’ 中 ‘-어’ 만을 取하고 있는데 이는 ‘ㅣ’가 中立母音의 段階를 지나 再調整 段階에 온 것으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³⁷⁾ 그런데 이 「예수성교전서」에서도 ‘ㅣ’ 다음에는 ‘-어’만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國語의 /i/도 歷史는 確實치 않지만 역시 */i/와 */i/의 合流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³⁸⁾ 16世紀에 非語頭音節에서 ‘ㅣ’가 대부분 ‘-’로 變하여 ‘-’가 部分的인 中立性を 띠게 되어³⁹⁾ 結果적으로 國語 母音調和 崩壞의 原因이 되었음을 볼 때 中立母音의 存在는 母音調和 崩壞의 가장 큰 原因이 됨을 알 수 있다.

4. 單母音化

二重母音 ‘ㅈ’, ‘ㅊ’ 등의 單母音化는 中部方言을 中心으로 볼 때 이미 18世紀에 일어난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⁴⁰⁾ 우선 ‘ㅈ’ [ɛ]의 경우 18世紀 後半에 와서 ‘ㅣ’는 ‘ㅈ’로 合流된 후 그 ‘ㅈ’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音價가 [aj]에서 [ɛ]로 單母音化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ㅊ’ [ə]도 [e]로 單母音化하였는데 그 時期가 18世紀 末葉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 理由는 19世紀 中葉에 刊行된 「關聖帝君明聖經諺解」(1855), 「閩閩叢書」(1869), 「過化存神」(1880) 등에 벌써 ‘ㅈ’와 ‘ㅊ’의 움라우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⁴¹⁾ 다시 말하면 ‘ㅈ’, ‘ㅊ’의 움라우트의 實現은 ‘ㅈ’, ‘ㅊ’가 各各 [ɛ], [e]로 單母音化된 것을 證明하는 것이 된다.⁴²⁾ 「예수성교전서」에 나타나는 ‘ㅈ’와 ‘ㅊ’의 움라우트 현상은 이미 앞에서 考察한 바 있는데 한 두개 用例만 보이겠다.

하나님의 양식기울 보라 <요안너복음 1 : 36>

34) 金芳漢 (1971), 中性母音에 對하여, 語學研究 7-2, p. 27.

35) Poppe (1964)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Otto Harrassowitz, Wiesbaden, p. 11.

36) 李基文 (1971), 母音調和理論, 語學研究 7-2 p. 32.

37) 그리하여 現代國語에서 이 ‘ㅣ’를 陰性母音으로 看做하게 되었다.

최현배 (1955), 우리말본(개정), 경음사, p. 167.

38) 李基文 (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 p. 138.

39) 李基文 (1972), 改訂國語史概說, 民衆書館, p. 203.

40) 李崇寧 (1954),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aktion 的 發達에 대하여, 東方學志 1.

41) 李秉根教授 조사에 依하면

‘익기논, 덕리고, 자바딩기다가, 지핑이, 기더러, 식기. 베긴, 저쳐……’ 등의 움라우트 用例가 많이 發見되고 있다.

李秉根 (1970), 19世紀後期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p. 380

42) 李基文 (1972),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p. 201

목숨을 익기 논자 <요안너복음 12:25>

물메기지 온으랴 <누가복음 13:15>

위에서 言及한 바 처럼 움라우트가 ‘h’, ‘k’의 單母音化를 證明하는 것이라면 이 「예수성교전서」에서 ‘h’, ‘k’ 움라우트가 그리 活潑하지 못한 점은 逆으로 이 「예수성교전서」의 譯者들의 言語 곧 平安道方言이라고도 할 말에서는 아직 ‘h’, ‘k’의 單母音化는 完全히 끝난 것이 아니고 部分的으로 ‘h’, ‘k’는 아직도 二重母音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推想을 하게 한다.

다음 用例를 보자.

a. 하날노 말민 썬을 <요안너복음 6:29>

싸으로 말민자논 <요안너복음 3:31>

b. 가니너로 말마엿느냐 <요안너복음 7:52>

가니너로 말마여 <요안너복음 7:52>

a에서 ‘말민-’로 쓰이는 말이 b에서는 ‘말마+ |’로 쓰였다. 即 ‘말마여’의 ‘-어’의 初頭音은 /i/이므로 만일 a의 ‘말민-’의 ‘민’을 二重母音으로 發音하면 b의 말마+ |와 ‘同一音’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의 音價는 ‘|’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用例를 ‘머이라’에서도 볼 수 있다.

죽은 자를 머이고 <누가복음 7:12>

머인자 멧추논지라 <누가복음 7:14>

많은 예는 아니지만 이처럼 中世國語에서 조차 별로 나타나던 ‘말마+ |’, ‘머이-’와 같은 用例를 보임은 아주 재미있는 事實이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움라우트 即 ‘|’의 逆行同化와는 關係없이 ‘|’와 ‘·’, ‘h’와 ‘k’의 自由로운 變異를 보거나 이 ‘머이라’類의 어사가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음은 結局 ‘h’, ‘k’의 單母音化는 이미 마무리 段階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이는 아마도 平安道方言의 ‘h’, ‘k’의 單母音化는 中部方言의 그것보다 약간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상을 하게 한다. 그러나 ‘멧’ (멧), ‘썬’ (썬), ‘헤’ (헤), ‘페-’ (페-), ‘썬’ (썬) 등이 보임은 단적으로 /ε/, /e/의 存在를 立證하여 주는 것이다.⁴³⁾

멧쳐냐 <요안너복음 10:24>

그 한나 썬을 썬지 온앗다 <요안너복음 19:36>

그 헤를 만지고 <말코복음 7:33>

능히 페지 못하니 <누가복음 13:11>

43) ‘멧>멧’ 등의 音韻論的解析에 關하여, 李珉鎬(1978), 경남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국어학 6, p.167.

너희 셴을 티면 <누가복음 6:29>

다음은 ‘니’와 ‘기’의 單母音化에 關하여 考察하련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듯이 ‘ㄴ’, ‘ㄷ’의 올라우트는 前舌母音 /e/, /e/의 存在를 立證한다. 마찬가지로 ‘ㄱ’, ‘ㄷ’의 올라우트는 /φ/, /y/의 存在를 立證하는 것이 된다. 이 「예수성교전서」에는 그리 흔하지는 않으나 이미 앞에서 例示했던 다음과 같은 ‘ㄱ, ㄷ’의 올라우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쇠경이 이서 좃즈며 <맛디복음 9:27>

쇠경과 안잔방이 <맛디복음 21:14>

스사로 쇠기지 말나 <코린뚝전서 3:18>

사롬을 쇠기미 혼이오 <베자형적 5:4>

취긴지 삼일후에 <말코복음 9:31>

다 취기니 <말코복음 3:4>

못사롬을 취겨 <말코복음 15:11>

이러한 올라우트가 일어나고 있음은 /φ/, /y/의 存在, 다시 말하면 ‘니, 기’의 單母音化가 일어났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니’, ‘기’의 單母音化가 그리 完全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니 一例로 위에 보기를 든 말 중에 ‘쇠기-’의 경우를 보면 올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은 用例도 많이 보이는 바

스사로 소기미니 <가라다셔 6:3>

나를 속여 <로마셔 7:11>

소기지 말나 <가라다셔 6:7>

등이 나타난다. 또한 中世國語에서만 해도 ‘외오-’ (暗記), ‘취-’ (休), ‘뛰-’ (跳) 등이 ‘오이-’, ‘수이-’, ‘뛰이-’로도 나타남을 보아⁴⁴⁾ 이 ‘ㄱ, ㄷ’의 單母音化도 그리 完全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ㄱ, ㄷ’의 올라우트는 19世紀 後期 다른 文獻에서 調査된 바와 別差없이 ‘스, 스’ 등 齒擦音下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도 이 ‘ㄱ, ㄷ’의 單母音化의 不完全性を 意味한다고 하겠다.⁴⁵⁾

이중모음 ‘니’는 現代國語에서 어떤 特定한 單母音으로 變換한 것이 아니고 二重母音 /ij/가 分解되어 어떤 어사들은 /i/로 또 어떤 어사들은 /i/로, 때로는 /e/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니’는 ‘내, 깨, 니, 기’의 單母音化와는 그 軌를 달리한다. 「예수성교전서」에

44) 오이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3>

들에게 잠시 수이라 <말코복음 6:31>

산파에 뛰여 너려 <맛디복음 8:32>

45) 李秉根教授는 初期의 ‘ㄱ, ㄷ’의 올라우트가 ‘스, 스’ 등 齒擦音下에서 먼저 일어남을 밝히면서 /φ/, /y/의 生成도 바로 齒擦音아래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推想을 한 바 있다.

李秉根(1970),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p.381.

서도 이 ‘니’는 이미 動搖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선 冠形詞로 ‘그’와 ‘기’가 함께 쓰이고 있다.

- 그 아빔은 유다요 <누가복음 3:32>
 그 아빔은 아미나답이요 <누가복음 3:32>
 기 아빔은 발외이요 <누가복음 3:35>
 기 아빔은 압라함이요 <누가복음 3:34>

또한 여격에는 ‘-의게’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으게’가 간간 나타나기도 한다.

- 죄인의게 빌니고 <누가복음 6:34>
 아빔의게 형용하여 <누가복음 1:62>
 돏트게 드러가게 <말코복음 5:11>
 더으게 보던면 <누가복음 11:49>

또한 ‘논으-’(分)가 ‘논의-’로, ‘-으로’가 ‘-의로’ 등으로 ‘니’와 ‘-’의 混記가 보인다.

- 산업을 논의게 호소서 <누가복음 12:13>
 시무녕의로써 <맛디복음 9:16>
 디로톨 발의게 하리라 <맛디복음 3:3>

한편 ‘니’가 ‘이’로 表記된 것도 있다.

- 네가 기로다 <요안너복음 9:9>
 네가 진실로 기로다 <요안너복음 13:13>
 널노 더부러 말하논자가 기로다 <요안너복음 9:37>

이와같이 ‘니’가 ‘-’와 ‘이’로 表記되고 있음은 곧 二重母音 ‘니’의 發音에 動搖가 오고 오고 있음을 意味한다.⁴⁶⁾ 그러나 앞에서 指摘한 바 있듯이 이 ‘니’는 어떤 特定한 單母音을 生成하지 않고 既往에 있던 ‘-’나 또는 ‘이’로 代置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은 다시 /e/로 바뀌는 현상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상으로써 ‘히’, ‘케’, ‘기’, ‘귀’ 등이 각각 /ε/, /e/, /φ/, /y/로의 單母音化를 살펴보았는데 ‘히’, ‘케’가 /ε/, /e/로 變換한 것이 ‘기’, ‘귀’가 /φ/, /y/로 變換한 것보다 다소 一般化했으나 ‘하’, ‘귀’의 움라우트가 그리 많이 發見되지 않는 것이나 中世語에서의 二重母音

46) 그러나 ‘니’를 그대로 固守하면서 表記되고 있는 단어도 있는 바 ‘의원’이 그 一例이다.

의원을 쓰지 온이 항고 <말코복음 2:17>
 열의원에 슷탄 고상항고 <말코복음 5:26>
 진강홀자논 의원을 쓰지 온코 <누가복음 5:31>
 의원이 스서로 꺄치라 <누가복음 4:23>

‘ㄱ’, ‘ㅋ’을 각각 ‘ㄱ+ㅣ’, ‘ㄱ+ㅣ’로 풀어表記한 語辭등의 露出은 이 ‘ㄱ’, ‘ㅋ’의 單母音化가 完全히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點을 밝혔다. 또한 ‘ㅇ’, ‘ㄱ’의 경우에는 ‘ㄱ’, ‘ㅋ’의 사정보다 더 /φ/, /y/로의 單母音化가 아직 不完全함을 露出시키고 있음도 考察했으며 ‘ㄱ’의 境遇에는 이 ‘ㄱ’를 가지고 있던 語辭들이 각각 ‘ㅡ’, ‘ㅣ’등으로 發音되기도 하는 ‘ㄱ’의 動搖를 把握했다.

5. 口蓋音化

「諺文志」에 ‘如東俗다더呼同자져 타터呼同차쳐 不過以按頤之此難彼易也 今唯關西之人 呼天不與千同 呼地不與至同 又聞鄭丈言其高祖昆弟 一名知和 一名至和, 當時未嘗疑乎, 可見디지之混 未是久遠也’라는 記錄을 通하여 口蓋音化는 中部方言에서는 17世紀 後半 또는 18世紀에 일어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⁴⁷⁾ 그러나 南部方言에서는 이미 17世紀 以前에 벌써 口蓋音化를 經驗한 것이 調査되었는데 1672年 慶尙道에서 刊行된 「杜詩諺解」 重刊本에 벌써 /t/계의 口蓋音化가 나타나며⁴⁸⁾ 1557年 全羅道 松廣寺에서 刊行된 「野雲自警」, 「發心修行章」, 「誠初心學人文」에도 벌써 口蓋音化가 나타나고 있다.⁴⁹⁾ 그러나 위의 「諺文志」는 關西地方에서는 當時 아직도 口蓋音化가 안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諺文志」의 刊行年代는 1824年인 것이다. /i/계 母音 앞의 ‘ㄷ’이 ‘ㅈ’으로 또는 ‘ㅌ’이 ‘ㅊ’으로 口蓋音化되는 것은 그 先行條件이 ‘ㅈ’의 音價가 齒莖音 [ts]에서 口蓋音 [tʃ]로 바뀌어야 하는 것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리고 보면 위의 「諺文志」를 通하여 볼 때 「諺文志」가 나온 19世紀初만 해도 關西地方에는 아직 ‘ㅈ’은 [tʃ]가 아닌 [ts]으로 발음되고 있었음을 意味한다.⁵⁰⁾ 「예수성교전서」에서도 ‘ㅣ’ 앞의 ‘ㄷ’이 ‘ㅈ’으로 바뀌지 않고 ‘ㄷ’ 그대로 나타난다.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더 아달을 <맛디복음 1 : 21>
- 복음을 던 하면 <맛디복음 9 : 35>
- 사롬보담 어딜문 <베자형적 17 : 11>
- 당인이라 <요안너복음 18 : 13>
- 문디키는 계집 <요안너복음 18 : 16>

이처럼 ‘ㅣ’ 앞의 ‘ㄷ’이 ‘ㅈ’으로 안 바뀌고 ‘ㄷ’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ㄷ’의 ‘ㅈ’으로의 口蓋音化가 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ㅌ’도 ‘ㅣ’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7)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 pp. 67~8.

48) 安秉禧(1957), 重刊杜詩諺解에 나타난 t口蓋音化에 對하여,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一潮閣, p. 339.

49) 李基文(1972), 前揭書 p. 69.

50) 許 雄(1964), 齒音攷, 국어국문학 27,

李基文(1972), 前揭書 p. 67

너를 털나 혼문 <요안너복음 10 : 33>
 밥팀테를 베푸난 요안너 <맛디복음 3 : 1>
 털국이 갓가오니라 <맛디복음 3 : 2>
 털사가다라 <누가복음 1 : 38>⁵¹⁾
 옷슬 님고 털연하물 보고 <말코복음 5 : 15>

그러나 ‘디옥’, ‘통—’, ‘씩—’ 등 상당수의 語彙들이 ‘ㄷ’으로 表記되면서 同時에 ‘ㅅ’으로도 表記됨을 보게 된다.

{ 디옥에 가물 면하라 <맛디복음 5 : 30>
 지옥에 더지논 이물 <누가복음 12 : 5>
 { 나물 도와호고 <요안너복음 16 : 27>
 { 조흔 음식으로 <누가복음 1 : 53>
 { 썩어 불에 더지리라 <누가복음 3 : 9>
 { 직어 버리고 <맛디복음 5 : 30>

이처럼 ‘ㅣ’ 앞에서 ‘ㄷ’과 ‘ㅅ’의 混記가 나타남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이는 「예수 聖교전서」 譯者들의 意識을 反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卽 그들의 常用語는 平安道方言인데 그들은 이 平安道方言이 다른 方言, 例컨대 서울方言과의 差異가 많이 남을 意識했을 것인바 그 中에도 特히 口蓋音化에 關하여는 平安道方言이 두드러짐을 看破하고 意識적으로 서울方言을 模倣하려 했던 것이라 여겨진다.⁵²⁾ 이러한 意識은 必要以上으로 ‘ㅣ’ 앞의 ‘ㄷ’을 ‘ㅅ’으로 바꾸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했으니 現代中部方言에서조차도 口蓋音化를 外面하고 있는 語辭들에 대해서도 ‘ㅣ’ 앞에 ‘ㅅ’을 表記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레물을 질이고 <누가복음 5 : 14>
 갈베에 질이 밀지 온코논 <요안너복음 2 : 25>
 말한마지만 하시면 <맛디복음 8 : 8>
 주인이 더지 오리라 <누가복음 12 : 45>
 그 발알에 업제여 <말코복음 5 : 22>

이들 用例에 보인 ‘질이고’, ‘질이’, ‘마지’, ‘더지’, ‘업제’ 등은 中世國語에서는 各各 ‘드리

51) ‘—더라’와 아울러 ‘—다라’體가 많이 쓰이고 있다.

다 밋다라 <요안너복음 4 : 53>

열 네 더다라 <맛디복음 1 : 17>

예수라 혼다냐 <맛디복음 1 : 24>

취라 혼다냐 <누가복음 9 : 18>

다샷 것아비가 잇다니 <요안너복음 4 : 18>

52) ‘ㅣ’ 앞에서 ‘ㅌ’과 ‘ㅈ’의 混記도 보이는데 不過 한 줄만이 바뀌면서 ‘통성’과 ‘충성’의 混記가 나타나기도 한다.

저근데 통성 혼논자는 큰메도 통성 호고 <누가복음 16 : 10>

저물에 충성치 안으면 <누가복음 16 : 11>

사롬의 험예 충성치 안으면 <누가복음 16 : 12>

고', 드리', '닥', '더되', '업데-' 등으로 쓰이던 말들이다. 이들이 現代中部方言에서 口蓋音化를 外面하는 理由는 'ㄷ' 다음에 순수한 'ㅣ'가 아닌 二重母音들이었기 때문이다. 一 例로 '더되'가 現代中部方言에서는 '더디'로 쓰이고 '더지'가 되지 않음은 바로 '디'의 'ㅣ'는 '니'의 變形이기 때문이다.⁵³⁾ 口蓋音化에 있어서는 앞에서 指摘한 바 있듯이 南部나 中部方言이 더 優勢한 便임은 確實한데 이들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는 通時的으로 二重母音이었던 'ㅣ' 앞에 있는 'ㄷ'이 'ㅈ'로 變했다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結局 위에 보인 用例들은 「예수성교전서」의 譯者들이 그들은 實際로 口蓋音化하여 發音하지 않고 있는 것을 意識的으로 口蓋音化시켜 表記한 것에 不遇한 것이라 보여진다.⁵⁴⁾

'ㄷ'의 'ㅈ'으로의 口蓋音化는 'ㅈ'의 音價가 齒莖音 [ts]에서 口蓋音 [tʃ]로의 變化를 前提로 한다함은 이미 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 「예수성교전서」에서는 아직 'ㅈ'이 [ts]였기 때문에 그 'ㅈ' 아래 'ㅈ, ㅊ, ㅌ, ㅍ' 등의 二重母音이 그대로 維持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ㅈ' 아래 'ㅈ, ㅊ, ㅌ, ㅍ'의 二重母音의 'ㅈ, ㅊ, ㅌ, ㅍ' 등으로 單母音化 되는 것은 'ㅈ'의 音價가 [tʃ]로 변한 後 그 아래서 'ㅈ, ㅊ, ㅌ, ㅍ'와 'ㅈ, ㅊ, ㅌ, ㅍ'는 辨別力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ㅈ' 아래 二重母音이 쓰인 用例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장노 <누가복음 7:3>
- 하나님의 사자 <맛디복음 1:23>
- 절기 <요안너복음 5:1>
- 만져 잇는자 <누가복음 13:30>
- 족하다 <누가복음 3:14>
- 종자룰 헤치느니라 <말코복음 4:3>
- 주의 사자 <맛디복음 1:20>

이와같은 現象은 'ㅈ'과 軌를 같이하는 'ㅊ'의 境遇에도 같다. 卽 아직 'ㅊ'이 口蓋音[tʃʰ]로 發音되는 것이 아니고 齒莖音[tsʰ]로 發音되기 때문에 그 아래 'ㅈ, ㅊ, ㅌ, ㅍ' 등이 'ㅈ, ㅊ, ㅌ, ㅍ'와 달리 發音되었던 것이다. 한 두개 用例를 보인다.

- 너의 처(妻) <맛디복음 1:20>
- 처녀가 잉태하여 <맛디복음 1:23>
- 은총과 능간이 <데자헝적 6:8>
- 출입 하며 <데자헝적 9:28>

'ㅈ', 'ㅊ'이 口蓋音化하지 않은 상태에서 'ㅈ'의 口蓋音化란 생각하기 어렵다. 現代國語

53) 金完鎭教授는 이처럼 口蓋音化가 안되는 理由를 形態音素의 差異에 말미암는 것이라 記述할 수 있다고 하면서 形態音素 /j/를 設定했다.

金完鎭(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制約, 學術院論文集 10.

54) 이러한 意識의 所産으로서 全州地域語에서 '金提'를 [kingie]로 發音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意識的인 '逆口蓋音化'라고 할런지.

에서는 ‘스’ 아래 ‘ㅍ, ㅋ, ㆁ, ㅍ’ 등의 二重母音이 ‘ㅏ, ㅑ, ㅓ, ㅕ’ 등의 單母音과 非辨別的임은 ‘스’이 一般的으로 齒莖音이 아닌 口蓋音으로 實現되기 때문이다. 「예수성교전서」에 나타나는 ‘스’ 아래 二重母音의 用例를 보인다.

- 상고하여 <누가복음 1:3>
 사관을 예비할나논디 <누가복음 9:52>
 섬기 갓다하니 <누가복음 4:8>
 함쳐 셔스물 보고 <누가복음 9:32>
 너희 쇼와 나귀가 <누가복음 14:5>
 목근바 슈전으로써 <요안너복음 13:5>

이들의 表記는 큰 變動없이 一貫性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아서 ‘스’의 口蓋音을 認定하기 어렵다.

現代 中部方言에서 ‘스, 스, ㅌ’ 등의 齒擦音 아래에 있는 ‘ㅡ’는 ‘ㅣ’로의 變化를 가져왔다. 이것도 ‘스, 스, ㅌ’의 口蓋音化를 前提로 하는 音韻變化임을 물론이다. 即 口蓋音, 스, 스, ㅌ’이 非口蓋音 ‘ㅡ’를 同化시켜 그 發音位置를 ‘스, 스, ㅌ’에 가까운 ‘ㅣ’로의 變動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러데 「예수성교전서」에는 이러한 同化가 보이지 않고 ‘스, 스, ㅌ’ 아래 ‘ㅡ’가 잘 쓰이고 있다.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사나운 스랑이라 <맛디복음 7:16>
 나뵈 슬여 하고 <요안너복음 12:48>
 쫓지 말고 <요안너복음 19:24>
 아달을 쫓발바 <히렐서 10:29>
 죽을즈슬 <요한너복음 12:33>
 짜즘싱과 멧즘싱 <데자헝적 11:6>
 존홀글 밋그러 <요안너복음 9:6>

現代 中部方言에서는 ‘시랑’ ‘싫어하고’ ‘쫓지 말고’ ‘짓밟아’ ‘죽을 짓을’ ‘짐승’ ‘진흙’ 등으로 바뀐 말들이 위와 같이 ‘ㅡ’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

‘가식’ ‘식어맘’ 등이 그대로 쓰임은 이 ‘스’이 齒莖音이기 때문일 것으로 理解된다. 이들이 ‘가시’ ‘시어멈’으로 바뀌려면 먼저 ‘스’의 口蓋音化가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 가식으로 면뉴관을 역겨 <요안너복음 19:2>
 식어맘 <누가복음 12:53>

이상의 考察을 通하여 이 「예수성교전서」에는 ‘스’를 비롯한 齒擦音의 口蓋音化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ㅣ’앞에 ‘ㄷ, ㅌ’ 등이 ‘스, ㅌ’으로 口蓋音化를 外面하고

있으며 ‘스, 스, 츠’ 아래의 ‘ㅈ, ㅊ, ㅌ, ㅍ’ 등의 二重母音도 올 수 있으며 ‘스, 스, 츠’ 아래 ‘ㅡ’도 ‘ㅣ’로 發音되지 않고 ‘ㅡ’ 그대로 잘 實現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⁵⁵⁾

6. 頭音法則

Altai 諸語와 國語의 共通特徵으로서 所謂 頭音法則이라 하여 語頭に 子音群이나 流音이 오는 것을 피하는 現象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리하여 外來語의 語頭音 /r/을 /n/으로 바꾸거나 또는 脫落시킨다. 「예수성교전서」에 나타난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나팔(喇叭)의 큰 소리 <맛디복음 24 : 31>
- 나발을 불어 <코린돏전서 14 : 8>
- 닉일(來日)은 <맛디복음 6 : 30>
- 오날과 닉일에 <누가복음 13 : 32>

이들은 /i/, /j/를 除外한 單母音 앞의 /r/이 /n/으로 바뀐 例들이다. 그러나 /i/, /j/앞의 /r/은 /n/으로 바뀌고 있다.

- 그 낭식(糧食)이 남은 거시 <누가복음 15 : 17>
- 뉴숙(留宿) 호고 <누가복음 9 : 12>
- 블근 농(龍)이 <요안넝목시록 12 : 3>
- 닌식(吝嗇)호 사뎐 <누가복음 19 : 20>

漢字語는 이처럼 語頭音의 /r/를 피하고 있는데 反하여⁵⁶⁾ 漢字語 以外的 /r/ 頭音을 가진 人名이나 地名等에 있어서는 ‘ㄹ’로 表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外來語라기 보다 外國語의 전사에 불과할 것이다. ‘로마’ <로마서 1 : 7>, ‘룻’ <누가복음 17 : 27>, ‘라합’ <맛디복음 1 : 5>, ‘로보암’ <맛디복음 1 : 7>, ‘룻’ <맛디복음 1 : 5> ‘리위’ <로마서 9 : 10>, ‘랍비’ <맛디복음 23 : 7>, ‘라마사박다니’ <맛디복음 27 : 46> 등을 例로 들 수 있다. 現代國語에서도 /r/을 頭音으로 하는 西歐 外來語에 있어서는 英語教育의 結果 그 /r/을 잘 發音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⁵⁷⁾

오늘날 國語에서 所謂 頭音法則이라 하면 위에서 論한 /r/音이 語頭に 오지 않는 音韻現象과 아울러 /i/, /j/ 앞의 /n/音도 語頭に 올 수 없는 音韻現象을 아울러 가리킨다. 그러므로 漢字語나 外來語의 語頭音 ‘냐, 녀, 뇨, 뉴, 니’가 각각 ‘야, 여, 요, 유, 이’로 바뀌어 發音되고 있

55) 小倉進平博士도 平女道方言에서 ‘디’ ‘티’ 등이 口蓋音化되지 않고 있음을 調査 報告했다.

小倉進平(1944), 朝鮮方言の研究 下, 岩波書店, p. 254.

56) ‘런단’ (鍊鍛) <비딤비 2 : 22> ‘레물’ (禮物) <맛디복음 2 : 11> ‘례복’ (禮服) <맛디복음 22 : 11>과 같은 몇개의 語辭에서 語頭に ‘ㄹ’을 그대로 表記한 것이 간간 눈에 뜨인다. 이는 語頭に /r/初聲 漢字音의 /r/를 피하는 것의 例外가 될 것인가 第二音節 以下에서는 分明히 /r/ 발음을 내고 있는 것에서의 類推로 因한 表記일 것으로 보며 그리 혼란 것은 아니다. 發音은 이미 /n/으로 내었을 것이다. ‘런단’은 ‘년단’ <로마서 5 : 3>으로도 쓰이고 있다.

57) ‘로케트’, ‘로버트’, ‘라디오’, ‘러브’, ‘라인’... 등을 잘 發音하고 있다.

음은 周知의 事實인 바 「예수성교전서」에서는 어떤 樣相을 보이는지 살펴 보겠다.

앞에서 例示한 ‘냥식’, ‘뉴숙’, ‘농’, ‘닌척’ 등은 語頭의 /r/을 피하는 것의 예로 들었지만 同時에 이것은 語頭의 /n/가 그대로 制限없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外에도 初頭에 /i/, /j/ 앞에 /n/음을 가진 漢字語나 固有語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훈 너인 <누가복음 7:37>
 녀너치 말나 <누가복음 12:22>
 닐어느라 <누가복음 7:14>
 아히 잇는 곳에 닐으려 <맛디복음 2:9>
 가라치물 닐어 <맛디복음 2:11>
 헤룻을 니여 <맛디복음 2:22>

이들 語辭들은 現代 中部方言에서는 各各 ‘여인’, ‘염려’, ‘일어나라’, ‘이르러’, ‘입어’, ‘이어’ 등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예수성교전서」에서는 ‘ㄴ’이 그대로 維持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바⁵⁸⁾ 이는 口蓋音化와도 關聯이 있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⁵⁹⁾ 卽 위에 보인 ‘녀인, 녀너, 닐어느라……’ 등이 ‘여인, 염려, 일어나라……’ 등으로 音韻變化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i/, /j/에 先行하는 ‘ㄴ’의 口蓋音化를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i/, /j/에 先行하는 ‘ㄴ’의 脫落은 그 ‘ㄴ’이 口蓋音化된 다음에 일어나는 音韻現象으로서 「예수성교전서」에 위와 같은 語辭가 나타남은 아직 /n/의 口蓋音化를 모르는 平安道方言의 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中部方言을 中心으로 하여 이 /n/의 口蓋音化는 /i/, /j/에 先行하는 ‘ㄷ’이 ‘ㅈ’으로 바뀐 다음일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데 18世紀 後半에는 ‘임금’ <十九史略 諺解 1:17> (1772)이 보이고 19世紀初의 繪音에서는 /i/, /j/에 先行하는 ‘ㄴ’의 脫落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르거든’, ‘입고’ ‘익히고’ ‘역이덕’…… 등을 例로 들 수 있겠다.⁶⁰⁾

이로써 「예수성교전서」에 나타난 所謂 頭音法則을 살펴 보았는데 語頭에 ‘ㄷ’을 기피하며 ‘ㄴ’은 制限없이 語頭에 쓰이고 있어 ‘냐, 녀, 뇨, 뉴, 니’ 등으로 始作하는 語辭가 그대로 維持되고 있는데 이는 /i/, /j/ 앞에서조차 ‘ㄴ’의 口蓋音化를 모르고 있음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7. 弱化 및 脫落

1. 유성을 사이에서 ‘ㅎ’의 脫落을 보이고 있다.

58) 語頭에서 /i/, /j/에 先行하는 /n/이 維持되고 있는 現象은 아주 一般的이며 /n/을 脫落시키는 例가 거의 없다. 심지어는 이에 類推되어 ‘이전’ (以前)조차도 ‘니전’ <로마서 16:4>으로 쓰이고 있음을 본다.

59) 李基文 (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 p. 68.

60) 田光鉉 (1971), 18世紀 後期國語의 一考察, 全北大論文集 13, pp. 12~13.

- 그 한나를 힐으면⁶¹⁾〈누가복음 15 : 8〉
- 만은 빅성이 〈누가복음 7 : 12〉
- 너의가 〈요안너복음 11 : 40〉
- 엄이 경계 하고 〈말코복음 1 : 43〉
- 올은 사름 〈누가복음 5 : 32〉
- 나를 도와 하고 〈요안너복음 16 : 27〉
- 조흔 싸음을 싸우고 〈티모도전서 6 : 12〉

이들 中 ‘너의’에 대하여는 ‘너희’로도 많이 쓰였으며⁶²⁾ ‘올은’에 대하여 ‘올흔’이 ‘도와’에 대하여는 ‘조흔’이, ‘싸음’에 대하여는 ‘싸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⁶³⁾ 그러나 中世國語에서만해도 一絲不亂하게 ‘ㅎ’이 表記되던 이들 語辭들이 ‘ㅎ’이 全然 안 쓰이거나 또는 混用되고 있음은 상당수의 語彙에서 이미 脫落되었음을 意味한다.⁶⁴⁾

2. ‘ㅎ’ 曲用 體言의 경우 ‘ㅎ’이 거의 脫落하고 있다.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한나이라 〈누가복음 10 : 40〉
- 하나님의 나라이 〈말코복음 10 : 14〉
- 우으로 온자논 〈요안너복음 3 : 30〉
- 하날을 울어러 〈누가복음 9 : 16〉
- 한나돌을 〈누가복음 21 : 6〉
- 열세에 나실 저에 〈누가복음 2 : 42〉
- 나논 길이오 〈요안너복음 14 : 6〉

이처럼 中世國語의 ‘ㅎ’ 曲用體言들이 曲用할 때 ‘ㅎ’이 脫落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위에 보인 語辭中 ‘한나’는 曲用時 ‘ㅎ’ 維持形도 나타나고 있다.⁶⁵⁾ 이 ‘ㅎ’ 曲用語의 ‘ㅎ’은 18世紀만해도 强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3. 所謂 變則용언 中 ‘ㅂ’ 변칙 용언의 경우 現代 中部方言에서와 같이 語幹末의 ‘ㅂ’은 모음語尾 앞에서 /w/로 바뀌거나 아예 脫落하는 樣相을 드러낸다.

- 턴국이 갓가오니라 〈맛디복음 3 : 2〉

61) ‘힐—’이 ‘힐—’로 쓰이고 있다.
 힐으면 〈누가복음 9 : 25〉
 힐엇던 은돈 〈누가복음 15 : 9〉
 힐엇다 다시 만넛였다 〈누가복음 15 : 24, 32〉
 그 맛을 힐으면 〈맛디복음 5 : 13〉

62) ‘너의’가 이미 18世紀 後期國語 繪音에서도 發見되고 있다.
 田光鉉(1971), 前揭論文, p. 52.

63) 너희 밋으물 〈비딤비 1 : 27〉
 올흔 사름 〈맛디복음 10 : 41〉
 조흔 음식으로 〈누가복음 1 : 53〉
 싸흠하면 〈누가복음 14 : 31〉

64) ‘임흠(名)의 경우는 ‘ㅎ’이 表記된 條로만 쓰이고 있다.

65) ‘홀나트’ 〈요안너복음 18 : 9, 데자헝적 25 : 11, 누가복음 4 : 27〉

66) 田光鉉(1971), 前揭論文 p. 65.

맞췌 어두운데 <맞뉘복음 25 : 30>
 나뉘 도와 <데자형적 26 : 22>
 우리를 도으쇼셔 <말코복음 9 : 22>
 구은 물고기 <누가복음 24 : 42>

中世國語에서 이 ‘ㅂ’ 變則 用言의 語幹 末音은 물론 ‘ㅃ’ 이었다.⁶⁷⁾ 그러나 現代國語에서 는 우선 文字 ‘ㅃ’ 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⁶⁸⁾ 이 ‘ㅂ’ 變則 用言의 語幹 末音에 對하여 많은 論 難이 일고 있는 바 이를 /β/로, /b/로, 또는 /w/ 등으로, 配定함을 보는데⁶⁹⁾ 「예수성교전서」 에는 이 ‘ㅂ’ 變則 用言은 現代國語의 中部方言과 別差異를 드러 내지 않고 있다,

‘ㅅ’ 變則用言이 母音語尾 앞에서 語幹末音 ‘ㅅ’ 이 脫落하는 것이나 ‘ㄱ’ 變則用言이 母音이 나 ‘ㄴ’, ‘ㄹ’ 으로 始作하는 語尾 앞에서나 ‘—시—’ 앞에서 語幹末音 ‘ㄱ’ 이 脫落하는 것은 現代 中部方言과 같은 樣相을 보이고 있다.⁷⁰⁾ 한 두개 用例만 보이겠다.

손으로 지은 던에 <데자형적 17 : 24>
 해뵈을 니여 <맞뉘복음 2 : 22>
 엇지 우느냐 <요안뉘복음 20 : 13>
 하날노 너린 사눈썹 <요안뉘복음 6 : 51>
 산자뵈 죽은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 : 5>

母音語尾 앞에서 語幹末音 ‘ㄷ’ 이 ‘ㄹ’ 로 바뀌는 ‘ㄷ’ 變則 用言도 現代 中部方言과 別差異 없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게 물운뉘 <요안뉘복음 18 : 19>
 사뵈의 물우물 <요안뉘복음 16 : 30>
 소력뵈 들을지니 <요안뉘복음 5 : 25>⁷¹⁾
 나뵈 들으미니 <요안뉘복음 11 : 41>

‘ㄹ’ 末音을 가진 用言의 語幹이 ‘ㄷ’ 으로 始作하는 語尾 앞에서 그 語幹末音 ‘ㄹ’ 이 脫落되 는 例가 보인다.⁷²⁾

67) 安秉禧 (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의 研究, 國語研究 4.

68) ‘ㅃ’의 音價는 일찌기 /β/로 밝혀졌다.

李崇寧(1954), 唇音攷, 서울大論文集, 1

69)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論文들이 있다.

金完鎭(1972), 다시 β/w를 찾아서 語學研究 8-2.

金次均(1971), 변칙 용언의 연구, 한글 147,

이병진(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金鎭宇(1971), 國語音韻論에 있어서 共謀性, 語文研究 7, 忠南大學校 文理大 語文研究會

金手坤(1977), ‘ㅂ’ 變則動詞類의 音韻論의 意義, 언어 2-2.

70) 語幹이 ‘ㄹ’로 끝나는 用言은 모두 이러한 變化를 가져오므로 嚴密한 意味에서 ‘ㄹ’ 變則이란 用言은 타당성이 없다.

71) ‘—’의 경우 西北方言에서는 現代國語에서도 母音語尾 앞에서 語幹末音 ‘ㄷ’의 變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意識의인 表記로 보아야 할 것이다.

72) ‘—지’의 境遇 ‘우리 지디 못홀익’ <데자형적 15 : 10>과 같이 ‘—디’로 表記되는 用例는 그리 많지 않고 ‘—지’로

- 우지 온이 혼다 <누가복음 7 : 32>
- 집에서 머지 온아서 <누가복음 7 : 6>
- 나라에 드지 못하나니 <요안넵복음 3 : 6>
- 성각하고 우더라 <말코복음 14 : 72>

이때 ‘ㄹ’이 脫落하는 것은 必然的인 音韻變化가 못됨은 ‘알지 안으리라’ <코린돏후서 5 : 16> ‘살지니’ <가라다셔 2 : 20>와 같은 用例가 發見됨으로써다.

8. 其 他

1. ‘ㄹ’ 다음에 ‘ㄱ’ 弱化 現象이 사라졌다. 中世國語에서는 ‘ㄹㅇ’으로 表記되던 ‘ㄱ’의 弱化音 ‘ㅇ’은 다시 ‘ㄱ’으로 表記되고 있으며 이는 곧 發音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본다. ‘ㄹㅇ’에서 ‘ㅇ’의 音價는 李基文 教授에 依하여 [ŋ]으로 提起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인 바 이 ‘ㅇ’이 다시 ‘ㄱ’으로 表記되고 있는 것은 [ŋ][g]의 音韻變化로 보기 보다는 처음부터 ‘ㄱ’음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던 方言의 勢力이 優勢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 알게 흐리라 <누가복음 5 : 24>
- 알게 흐갓느이다 <로마서 17 : 23>
- 날과 함께 흐미라 <요안넵복음 15 : 27>
- 나를 보닌 줄과 흐흔 더를 사랑함미 <요안넵복음 17 : 23>

特記할 것은 共同格의 ‘-과’는 母音으로 끝난 體言아래에서 ‘-와’와 마구 混用되고 있으나⁷³⁾ ‘ㄹ’로 끝난 體言아래에서는 위에서 보인 것처럼 ‘-과’가 쓰이고 있다.⁷⁴⁾ 물론 ‘ㄹ’이 의의 子音으로 끝난 體言아래에는 ‘-과’가 쓰이고 있다.⁷⁵⁾

2. 상당수의 語辭에서 子音接變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加급적 表記의 統一性을 기하려는 努力을 한 結果 大部分의 語辭에서 形態素를 固定 表記하였으므로 子音接變된 소리를 그대로 表音表記를 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몇 개 用例를 들어 보인다.

- 하나님을 성기 논테 흐되 <요안넵복음 16 : 2>

거의 統一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中部方言에 影響받은 意識的인 表記일 것이다. 現代語에서도 西北方言은 이 語辭에 대하여는 口蓋音化가 안일어나고 있다.

73) 가논홀자와 병신 <누가복음 14 : 21>
 쇼와 나귀 <누가복음 14 : 5>
 칭흐논자과 그 동성 <누가복음 6 : 14>
 부모과 동성 <누가복음 18 : 29>

74) 간간 ‘ㄹ’아래 ‘-와’가 表記된 것이 나타나기도 하나 그것은 發音 그대로가 아닌 表記상의 ‘-와’와 ‘-과’의 混用에서 온 結果일 것으로 본다.
 피들과 요안넵 <데계형적 8 : 15>
 쓴열와 불의 <데자형적 8 : 23>

75) 잔과 가미 <말코복음 7 : 4>
 이 사람과 부모 <요안넵복음 9 : 3>
 소경과 안잔방이 <누가복음 14 : 21>

너의 눈에 씩길이니 <누가복음 19 : 39>
 갓가원논지라 <요안너복음 6 : 23>
 이튼날 <요안너복음 1 : 35>
 할량업스미라 <요안너복음 3 : 34>
 불너 <누가복음 1 : 36>

‘싱기논’은 ‘섬기논’의 變形이며 ‘싱길이니’는 ‘쉽기리니’의, ‘갓가원논지라’는 ‘갓가원논지라’의 變形이며 ‘이튼날’은 中世國語에서는 ‘이튿날’로 쓰이던 말이다.⁷⁶⁾ ‘할량’과 ‘불너’는 各各 ‘限量’과 ‘本來’의 發音 ‘한량’, ‘본릭’의 變形인 것이다.

形態素를 固定시켜 表記하려는 意識이 作用한 結果 體言과 助詞는 所謂 分綴함을 原則으로 했으나 用言의 語幹과 語尾는 主로 連綴을 했다. 體言과 助詞의 境遇 /s/를 나타낼 때는 體言 末音의 ‘s’을 다음 母音 助詞에 連綴하는 것이 一般的이며 體言이건 用言의 語幹이건 /t/를 나타낼 때는 ‘s’을 받침으로 썼다.⁷⁷⁾ 한가지 特記할 것은 流音 ‘르’은 어떤 環境을 막론하고 連綴하지 않고 分綴表記하고 있다.⁷⁸⁾

3. 16世紀末에서부터 보이기 始作한 ‘ㄱ’과 ‘ㄷ’의 相通도 간간 나타나고 있다. 몇개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그물을 빅 우천에 치면 <요안너복음 20 : 6>
 { 그물을 치디 <요안너복음 20 : 6>
 { 더러운 귀신 <누가복음 4 : 33>
 { 더러운 귀신 <누가복음 11 : 24>
 { 수리항물 보고 <누가복음 11 : 25>
 { 하나님의 형항물 항리요 <요안너복음 6 : 27>
 { 밧켄 어두운데 <맛디복음 25 : 30>
 { 어두운데 더지라 <맛디복음 12 : 13>
 { 더욱 죽이고져 항문 <요안너복음 5 : 18>
 { 더욱 불려 가로디 <말코복음 15 : 14>

76) 이는 ‘이틀’과 ‘날’의 複合語로서 먼저 ‘s’ 앞의 ‘르’이 脫落하고 그 다음, ‘s’은 /t/를 거쳐 ‘날’의 ‘ㄴ’에 同化되어 /n/으로 바뀐 것이다.

이튿날 <月-6>
 이튿날 <月七 5>

77) 池春洙(1971), 初期聖經에 나타난 正書法에 대하여, 국어 국문학 54, 李基文教授는 中部方言의 경우 16世紀 初葉에 音節末의 ‘s’과 ‘ㄴ’의 對立이 中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수성 교전서」에 反映된 音節末 ‘s’은 /t/를 나타내며 그리하여 音節末 終聲의 수는 結局 7개 된다.

78) 몇개 用例만 보이겠다.

글(書)에 일오되 <누가복음 4 : 8>
 물이(水) 넘저 <누가복음 6 : 48>
 벌이(頭) 돌곳 <누가복음 9 : 58>
 그 술이(聲) 툄 들오리 <요안너복음 10 : 3>
 달은(他) 메자 <요안너복음 18 : 15>
 글어나(然) <누가복음 12 : 6>
 성년(을) 갈으치미라(指) <요안너복음 2 : 20>
 복이 이살으이라(有) <요안너복음 13 : 17>

이러한 ‘ㄱ’와 ‘ㄷ’의 相通은 18世紀 國語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⁷⁹⁾
 ‘ㄱ’와 ‘ㄷ’의 相通과 아울러 ‘ㄴ’와 ‘ㄹ’의 相通도 나타난다.

- { 옷덤이 된자 <누가복음 22 : 26>
- { 엇듬 되물 <요안너삼서 9>
- { 무슨 흠을 <요안너복음 18 : 38>
- { 무슨 힘 보지 못훈줄 <요안너복음 19 : 4>
- { 청큰된 <말코복음 6 : 36>
- { 청컨된 <메자헝적 21 : 39>
- { 큰 물이 넘져 <누가복음 6 : 48>
- { 권 은혜 <누가복음 1 : 28>

복수 접미사 ‘-들’은 아예 ‘-덜’로 나타난다.

- 더덜이 듯고 <메자헝적 21 : 20>
- 아히덜이 <누가복음 7 : 32>
- 이 사롭덜을 <요안너복음 18 : 8>
- 메자덜을 <누가복음 6 : 13>

오늘날 慶尙道方言 가운데 一部가 ‘ㄴ’와 ‘ㄹ’의 音素的 對立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자못 흥미 있는 일이다.⁸⁰⁾

Ⅲ. 結 論

1882년에 나온 「누가복음」, 「요안너복음」과 그 다음에 이어 나온 初期翻譯聖經들이 함께 묶여 1887년에 刊行된 「예수성교전서」의 音韻論의 特徵을 考察하였는바 지금까지 考察한 바를 간략하게 要約함으로써 結論을 삼고자 한다.

1. 圓唇母音化가 活潑히 일어나고 있다. 즉 通時的으로 圓唇母音化를 겪은 ‘불’ (火), ‘풀’ (草), ‘쌀’ (角), ‘붉다’ (紅), ‘부티다’ (附) 등이 發見됨은 물론 共時的으로 形態素 連結位置에서 圓唇母音化가 아주 活潑히 일어나고 있다. 즉 명사형어미 ‘-으’ 다음에 ‘-을’, ‘-으로’, ‘-은’ 등의 助詞가 올 경우 이들의 初頭 /i/는 /u/로 圓唇母音化한다. 또한 圓唇母音 ‘ㄱ’, ‘ㄷ’로 끝나는 用言語幹에 連結되는 ‘-으면’, ‘-어/아’등도 ‘-우면’ ‘-워/와’로 각각 圓唇母音化하기도 한다.

79) 田光鉉(1971), 18世紀後期國語의 一考察, 全北大論文集 13, p. 58.

80) 崔明玉教授는 慶北 盈德郡 寧海面 槐市와 大津의 方言을 調査한 바 있는데 大津의 모든 話者와 槐市の 30代 以下の 話者들은 ‘ㄹ’와 ‘ㄴ’의 音素的 對立을 가지지 못한다고 調査 報告했다.

崔明玉(1980), 慶北 東海岸方言 研究, 慶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 155.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下, 서울大出版部, p. 340.

2. 음라우트는 그리 활발한 편이 못된다. 더구나 ‘ㄱ’, ‘ㄷ’의 경우는 ‘ㄱ’, ‘ㄷ’의 경우보다 더 활발하지 못하다.

3. 母音調和가 문란하다. 目的格助詞로는 ‘-를’과 ‘-을’이 주로 쓰여지고 있으며 주계격 조사로는 ‘-는’과 ‘-은’, 造格으로는 ‘-으로’, 所有格으로는 ‘-의’, 與格으로는 ‘-게’, ‘-의게’가 쓰였다. 動詞語幹에 連結되는 冠形詞語尾로는 過去에 ‘-은’, 現在에 ‘-는’만이 쓰이고 있으며 未來에는 ‘-을’이 母音調和와 關係없이 거의 無原則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ㄴ’音價의 消滅에서 온 混亂이며 또 한편으로는 形態素를 單一化하려는 意識의 結果인 것이다. 形態素 連結位置에서 母音調和가 지켜진 것은 다만 副詞形語尾 ‘-아/어’뿐이다. 즉 陽母音語幹 다음에는 ‘-아’가 쓰이고 陰母音語幹 다음에는 ‘-어’가 母音調和를 지켜 쓰이고 있다.

4. ‘ㅐ’, ‘ㅑ’가 單母音化하여 /e/, /e/로 바뀌었다. ‘ㄱ’, ‘ㄷ’의 음라우트가 일어나고 있음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ㅐ’, ‘ㅑ’의 二重母音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ㅐ’, ‘ㅑ’의 單母音化는 ‘ㅐ’, ‘ㅑ’의 單母音化보다 더욱 不完全함을 보여 주고 있다. ‘ㄱ’, ‘ㄷ’의 음라우트가 ‘ㄱ’, ‘ㄷ’의 음라우트보다 그리 활발하지 못함은 이를 말해준다. ‘ㄴ’는 상당한 동요를 보이고 있다. ‘ㄴ’나 ‘ㄷ’로 바뀌고 있음을 이들과의 混用에서 알 수 있다.

5. /i/계모음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口蓋音化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ㅈ’, ‘ㅊ’의 音價가 口蓋音 [tʃ], [tʃʰ]이 아니고 齒莖音 [ts], [ts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ㅈ’, ‘ㅊ’ 아래 ‘ㅈ, ㅊ, ㅉ, ㅊ’ 등의 二重母音도 변동없이 나타난다. 그러나 翻譯者들은 ‘ㄷ’, ‘ㅌ’이 이미 口蓋音化된 서울말등을 意識한 나머지 아직 오늘날 서울말에서조차 口蓋音化되지 않고 있는 몇개의 語辭에 대해서까지 ‘ㄷ’ 앞의 ‘ㄷ’을 ‘ㅈ’으로 바꾸어 表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ㅈ’도 口蓋音化를 外面하고 있어 ‘ㅈ’아래에도 ‘ㅈ, ㅊ, ㅉ, ㅊ’ 등의 二重母音이 잘 나타나며 아울러 ‘ㅈ’, ‘ㅊ’아래 ‘ㄷ’는 ‘ㄷ’로의 變化를 外面한다.

6. 語頭に ‘ㄷ’이 오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語頭に /i/, /j/에 先行하는 ‘ㄷ’은 變動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리하여 ‘ㄷ’ 초성을 가진 漢字語의 頭音中 /i/, /j/ 이외의 母音에 先行하는 ‘ㄷ’은 ‘ㄷ’으로 바뀌고 또한 /i/, /j/에 先行하는 ‘ㄷ’도 現代 中部方言에서와는 달리 ‘ㄷ’으로 바뀌어 그대로 쓰인다. 물론 中世語에서 쓰이던 語頭に /i/, /j/에 先行하는 ‘ㄷ’을 가진 固有語도 變動없이 그대로 쓰인다. 이는 아직 /i/, /j/에 先行하는 ‘ㄷ’이 口蓋音化를 外面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7. 有聲音間에서 ‘ㅎ’이 脫落되며 中世語에서 ‘ㅎ’ 曲用語로 쓰이던 말도 ‘ㅎ’이 脫落되어 나타난다.

用言의 語幹末音 ‘ㄷ’이 ‘ㄷ’ 앞에서 脫落하고 있다.

所謂 ‘ㅐ’ 변칙, ‘ㅑ’ 변칙, ‘ㅈ’ 변칙, ‘ㅊ’ 변칙 등이 現代 中部方言과 大差없이 쓰이고 있다.

8. ‘ㄱ’ 아래 ‘ㄱ’ 弱化現象이 사라졌다. 즉 ‘ㄱ’ 아래서도 ‘ㄱ’이 그대로 잘 쓰이고 있다. ‘ㄱ’ 앞에서 ‘ㅁ’이 ‘ㅇ’으로, ‘ㄴ’ 앞에서 ‘ㄷ’이 ‘ㄴ’으로, ‘ㄱ’ 앞의 ‘ㄴ’이 ‘ㄱ’로 바뀌는 등 子音接變現象이 表記에도 간간 反映되고 있으며 ‘ㄱ’와 ‘ㄷ’의 相通과 ‘ㄱ’와 ‘ㄴ’의 相通도 나타난다.

初期翻譯聖經인 「예수성교전서」가 이와 같은 音韻論的 現象을 드러내고 있음은 바로 이 冊의 翻譯者들이, 즉 로쓰 牧師와 매킨타이어 牧師를 除外한 韓國人들이 李應贊을 비롯하여 모두 平安道 義州靑年들이었으므로 當時 平安道 方言이 反映되었기 때문이다.

參 考 論 著

- 康允浩(1967), 十九世紀初에 있어서의 西洋宣教師의 韓國語研究, 東西文化 1.
- 高永根(1979), 19世紀 中葉의 불란서 宣教師들의 韓國語 研究에 對하여, 金亨奎博士停年退任紀念論文集 서울大 師大.
- 곽안진(1961),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 김동기(1961), 성서문체사고, 연세대학교학원.
- 金芳漢(1971), 中性母音에 對하여, 語學研究 7-2.
- 金手坤(1977), ‘ㄴ’ 變則動詞의 音韻論的 意義, 언어 2-2.
- 金良善(1967), Ross Version 과 韓國 Protestantism, 白山學報 3.
- (1971), 韓國基督教史研究, 基督教教文社.
- 金完鎭(1957), -n, -l 動名詞의 統辭的 機能과 發達에 對하여, 國語研究 2.
- (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 (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 10.
- (1972), 다시 $\beta > w$ 를 찾아서, 語學研究 8-2.
- 金鎭宇(1971), 國語音韻論에 있어서 共謀性, 語文研究 7.
- 金允經(1954), 韓國文字及語學史, 東國文化社.
-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出版部.
- 羅采雲(1970), 國譯聖書에 대한 國語學의 研究, 慶北大 大學院.
- 白樂濬(1973), 韓國改新敎史, 延世大出版部.
- 宋 敏(1976), 19世紀 天主教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국어국문학 72·73.
- 安秉禧(1957), 重刊杜詩諺解에 나타난 t 口蓋音化에 對하여,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一潮閣
- (1959), 十五世紀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研究, 國語研究 4.
- 兪昌均(1967), 國譯聖書가 國語發達에 끼친 影響, 東西文化 1.
- 李琰鎬(1978), 경남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국어학 6.
- 李基文(1971), 母音調和理論, 語學研究 7-2.
- (1972), 改訂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
- 이병진(1976),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 李秉根(1970), 19世紀後期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 李崇寧(1954),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 的 發達에 對하여, 東方學志 1.
- (1954), 唇音攷, 서울大 論文集 1.

- (1955), 音韻論研究, 民衆書館.
- 田光鉉(1971), 18世紀後期國語의 一考察, 全北大 論文集 13.
- 전택부(1980),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
- 趙演鉉(1956), 韓國現代文學史, 現代文學社.
- 趙載潤(1983), 初期國譯聖經의 國語學的 考察, 培材文學 1.
- 池春洙(1971), 初期聖經에 나타난 正書法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54.
- 崔明玉(1980), 慶北 東海岸方言研究, 慶北大 民族文化研究所.
- 崔泰榮(1980), 母音調和論, 一山金俊榮先生華甲紀念論叢.
- (1981), 全州地域語의 音韻論的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 (1983), 方言音韻論, 螢雪出版社
- 최현배(1955), 우리말본(개정판), 정음사.
- 表聖洙(1971), 한글聖書文體의 形成 및 變遷過程에 關한 小考, 高麗大教育大學院.
- 許 雄(1964), 齒音攷, 국어국문학 27.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籍.
- 小倉進平(1944), 朝鮮方言の研究 下, 岩波書店.
- Hayata, Teruhiro (1975), A Note on Vowel Harmony in Middle Korean, Gengo Kenkyu 68.
- Poppe, N. (1964),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Vago, R.M. (1973), Abstract Vowel Harmony System in Ural Altaic Language, Language 49.